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02)	봉헌 (217)	성체 (175)	파견 (101)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을 때
“이 성수로써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악한 생각을 없이 하소서”
하고 기도한 후 성당 안으로 들어와 제대를 향하여 경건하게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 성당으로 들어갈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어가거나 어깨를 짝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예의와 겸손한 자세를 갖추십시오.
- 제대를 향하여 가운데 통로를 통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 중에도 가운데 통로로 다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중앙 통로는 사제, 수도자, 전례봉사자만 통행하여야 합니다.
제대 앞을 지나고자 할 때에는 정중히 머리 숙여 예를 갖춘 후 통과 하십시오.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6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13	유 요한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0	이 미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7	이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95	\$102	\$5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1	손 아놀드/ 손 쟈마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12/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1/12	홍 마르코/ 홍 아네스
12/1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12/22	이 요한/ 이 마틸다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12/29	유 요한/ 유 마리아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 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새해 미사
1 월 1 일(화요일) 10:00pm

말씀의 이삭

아버지의 집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네 살 때 아버지를 여윈 저는 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이 '원체험'은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했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게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하느님이 저를 키웠다고 말하지만, 가끔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성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늘에서 온 가족이 아침 저녁로 기도하고 미사 참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친가 외가가 다 구교집안이라 세례 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혼인성사와 병자성사, 신품성사 등 삶에서 칠성사의 은총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도 부모 없이 자랐다고 욕할까봐 못시선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편견이 좀 심하잖아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집', '거처할 곳', '자리'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통증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갑자기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성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위로로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집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제집이 아니었고, 작은아버지 집도 제집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지만 동생 집도 제집이 아니었고요. 하느님의 집이라고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체험이 너무 아파서 어디에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사는 저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살자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 호주제가 폐지되고 세상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혼족, 혼밥이란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그 어디에도 집이 없어 외롭고 쓸쓸했던 저처럼 어쩌면 그들도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러기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확실한 길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견진성사는 주교만 집전하나요?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입문 성사로,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신앙을 굳건히 해준다 하여 견진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성사를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866조) 하지만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적어도 열두 살 이상이 되어야 견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가 줍니다. 필요한 경우 주교가 사제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곧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교가 아니라도 어느 사제나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3조 3항)